



IV. 회원 칼럼

회원 칼럼
(Member Column)

1. 김성렬 펜싱칼럼

나의 코칭 비망록

1. 세계적인 것을(Globalization)내게로, 내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glocalization)'

세계화라는 단어가 생소한 시절이었다. 1981년 9월 30일 IOC 총회에서 한국은 나고야를 52대 27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제24회 올림픽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그렇게 한국의 스포츠는 모든 분야에 앞서 세계화를 시작하였다.

냉전시대의 말미에서 나는 박사과정의 해외유학을 꿈꾸며 학비를 벌기위해 올림픽 꿈나무를 가르치다 우수 지도자로 발탁되었다. 그리고 펜싱 종주국인 프랑스에 6개월의 국비 연수를 다녀 온 후, 26세의 나이에 올림픽 최연소 국가대표 코치가 되었다.

해외여행의 자유화가 시작되던 그 때, 나는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세계 무대라는 시험대에 올려졌다.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온 유럽의 펜싱은 이미 수많은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수 주 간격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수준의 시합을 통해서 자리잡혀 있었다.

올림픽이 결정된 이후 2달의 전지훈련 그리고 1년 1~2회의 경기 출전이 전부인 한국팀이 서울올림픽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우리에게 지켜야 할 전통이 없으며 그러므로 얽매일 형식도 없다.'

오늘날에는 한국적인 것들이 세계화된 사회에서 각광받고 있지만 나는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1980년대 냉전의 막바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스포츠 과학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것의 세계화 곧 세계 무대에서의 한국적인 펜싱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 도전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서울올림픽에서 7위를 하며 한국의 펜싱을 세계 무대에 올렸다. 1996년 예선을 치루는 올림픽 경기에서는 올림픽 우승 후보였던 독일팀을 꺾었고 아틀란타 올림픽 본 선에 개인 단체를 합쳐 9 종목이 출전하게 하였다. 이어서 시드니올림픽에서 한국 펜싱 최초로 남자 에베 동메달 그리고 남자 플러레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기반을 만들어 오늘날 세계 무대에서 20년 만에 한국을 펜싱 강국으로의 발돋움을 하게 하는 기틀을 만들었다.

2. 쫓아가는 자에서 지키는 자로

오늘날 한국 스포츠는 문화와 사회와 함께 세계화된 사회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놓여있다. 다른 의미로 이제 예전의 쫓아가는 입장에서 지키는 입장으로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곧 지식과 정보가 공개되고 세계화된 오늘날의 스포츠 무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 코치는 거기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일등과 일류의 차이와 같다. 일등과 일류는 다르다. 일등은 우연히 될 수도 있다. 마치 우리가 반짝 가수라고 말하는 것처럼 경기의 대진 운이 좋거나 강력한 경쟁상대가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로 인해서 일등을 할 수도 있다. 일등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쩌다 일등을 한 사람이다. 사실 항상 일등을 하는 선수들은 자신이 일등을 한 것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다. 일류는 일등을 자랑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일등을 할 수 있는 그들의 관심은 일등이라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있다. 대부분 그런 선수들의 반응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 대신, '이번에는 뭐가 좀 잘 됐어!' '그냥 운이 좋았어!' '오늘은 상대가 좀 실수를 해서...'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 한다. 곧 요행이나 우연으로 달성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만났던 대부분의 훌륭한 선수나 코치들은 그렇게 결과 중심적이기 보다는 과정 중심적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이기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신조를 가지고 있다. 요행이나 우연이 계속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유지하고 그러기 위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기 철학 혹은 정체성이 요구된다. 그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과 생활에 성실함과 끈기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으며, 경쟁에 임해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니체의 "삶을 사랑하는 것은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그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훈련과 생활에 대한 정체성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고 생각하는 관점인 자기 철학은 갈수록 경쟁이 첨예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스포츠 상황 아래서 심적 갈등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자신이 이룩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인 것이다.

3.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전쟁같은 어려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모두가 이기기 어렵다고 예측하는 경쟁에 나가는 대표팀을 만으면서 선수들에게 물었다.

"누군가 인생은 전쟁 아니면 사랑이라고 했다. 너희는 어느쪽인가"

그러자 선수들은 곧 바로 대답했다.

"전쟁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생각해보라. 전쟁을 하면 목숨이 가장 아깝다. 그러나 사랑하면 사람들은 목숨도 기꺼이 내어 놓는다. 그렇지 않은가? "

"... "

" 자 다시 묻겠다. 대답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우리가 훈련을 하고 노력하는 것은 이기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승리가 전부라면 그것은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나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종종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며 착각에 빠지게 하는 틀린 생각이다. 우리는 그것을 수단과 목적이 뒤

바뀌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것, 그래서 훈련을 하고 경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신의 꿈이나 소망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지 않은가? 돈을 벌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 나는 우리가 이 어려운 경쟁에서 희망과 끈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하여 도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기고자 하는 정신과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성실하고 끈기있게 훈련에 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

"자, 여러분은 어떤가? 미래는 오늘의 결과이고 오늘은 그 미래의 원인이다. 그러나 그 오늘은 아무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 바로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다. "

"자,!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 성실함과 끈기로 도전하는 멋진 하루를 살 준비가 되어있는가!"

그렇게 그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이루어 냈다.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 준 이들을 위해 ... 그렇다. 우리의 믿음은 타고나는 것도 누군가에게 부여받는 것도 아니며 성실함과 끈기를 가지고 이루는 충실한 오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4. 마음을 비운자는 마음을 비웠다고 말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오랫동안 전지 훈련을 할 때의 일이다. 성격이 급하고 욕심이 많은 선수가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시합이 끝나면 내게 찾아와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고 방법을 묻고 고개를 끄덕이며 답을 찾곤 했다.

그리고 방을 나설 때 일어서서 공손하게 '선생님 ! 오늘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문을 나서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아직 멀었군!...' 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렇게 몇 번이 반복되던 어느 날, 그가 상담을 마치고 일어서서 똑같은 태도로 인사를 했다.

"선생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그를 불러 세우며 내가 말했다.

"그러면, 너는 내가 깨닫게 해 주지 못하면 감사 안 하겠네 ? "

" 네 ?..."

"너는 아직도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 너는 단지 지난 일에 대해서 이해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왜냐면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너는 이미 바뀌어있겠지..."

"... "

"OO 도 내게 상담하러 온다. 그러나 OO는 이야기가 끝나면 함께 마시던 찻잔을 가져다 깨끗이 씻어 놓고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정리하고 난 후 내게 그렇게 말한다. '선생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 '라고 ... 네 생각에 누가 더 감사하는 것이지?"

"..."

"너는 지금 그릇을 바꾸려는 것이지 그릇 안에 든 것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지 않니? 그런데 너는 여전히 네가 가진 생각의 틀 안에서 계속해서 생각꺼리만 바꾸고 있다. 그러니 너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

"시합은 생각이 아니다. 행동이다. 사고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행동은 반복될 뿐이다. 네모진 틀로 동그란 빵을 구워 낼 수 없지 않니? 너는 내가 전해 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으로 받아 들인 것을 하고 있다. 나는 너한테 사과를 주었는데 너는 오렌지를 받은 것이

1. 김성렬 펜싱칼럼

다. 그러니 너는 또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너는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 네가 실수나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선수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아~ 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 후로 그 선수와 같은 문제로 상담하지 않았다. 다만 기회가 날 때마다 와서 내 방을 청소하고 갔을 뿐이다.

수고했다는 내 말에 그는 그냥 나와 눈을 맞추고 기분 좋은 웃음으로 화답했을 뿐이다.

내가 오렌지를 주면 그도 오렌지를 받는다. 내가 사과를 주면 그도 사과를 받는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왜냐고 그가 잔을 깨끗이 비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맛 본 것은 내가 준 오렌지 맛도 아니고 내가 준 사과 맛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더 기쁘다. 내가 전하려는 것을 그가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것 같다. 깨달았다 해서 다 잘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가르쳤다 해서 다 깨달은 것도 아닌 것 같다.

